

충북지역 대학의 취업정책과 대학생 수요의 상관성 분석

김동환*, 오상영**

*청주대학교, **영동대학교

dhkim@cju.ac.kr, culture@yd.ac.kr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a student's demands and employment policy of university

*Dong-Hwan Kim, **Sang-young Oh

*Chongju University, **Youngdong University

요 약

대학의 취업 정책은 졸업자의 취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대학생 취업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의 취업정책의 의도, 추진 성과, 준비성 등과 대학생이 인지하는 만족도, 효율성 등 부문에서 일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정책의 효과에도 문제가 있지만 정책 추진의 효율성도 떨어져 예산 낭비로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취업 정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대학 정책에 대한 대학생의 인지도, 활용도, 만족도 등을 분석하여 대학 정책의 수정을 제시하고 있다.

1. 서론

교과부가 대학을 평가해 하위권 15% 대학의 재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에 제한을 가하기 위해 4가지 지표를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한 가지 지표가 취업률이다. 이처럼 교과부의 평가 압력과 취업이 신입생 모집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대학은 학생을 위한 취업 정책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대학의 취업 정책에 대한 연구도 적지 않다. 황여정 외(2008)¹⁾는 대학의 취업 지원 노력과 학생들의 4년제 대학의 취업지원활동에 대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해당 학생의 취업 여부 및 대기업 정규직 취업 여부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경숙(2003)²⁾은 자기 주도적 집단 상담 프로그램이 진로 성숙도 및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태도영역 모두에게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며 능력영역에서는 직업세계의 이해와 직업선택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있었으나 의사 결정에서는 유의미하나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대학 정책과 대학생의 수요 사이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연구하여 차이 극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1) 황여정, 백병부,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2), pp.1-23, 2008
2) 이경숙, "자기 주도적 집단진로탐색 프로그램이 진로 성숙도 및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대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1 대학의 취업 정책

최근 취업은 곧 대학 경쟁력이므로 대학이 취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³⁾ 따라서 대학생의 취업을 위해 제공되는 대학의 취업서비스는 그 양과 질적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하지만 대학 정책의 다양성 측면에서는 적지 않은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취업지원센터 혹은 취업지원팀이 각 대학이 조직화되어 있다. 일부 진로지도와 취업지원을 달리하는 학교도 있지만 정부에서는 이를 종합하여 수행 할 것으로 권장하고 있다.⁴⁾ 이러한 정책의 종류에는 산학협동교육, 맞춤형 취업대비 교육 실시, 인턴제도 운영, 취업관련 강좌 개설, 교원에 의한 취업 지원, 취업정보지원시스템 운영, 취업전문기관 연계한 직접 취업지원 등 다양하다. 그렇지만 학생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은 편이다.

대학 취업 조직에 대한 선행 연구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02)⁵⁾과 김학섭(2004)⁶⁾의 연구 결과를 보면 대학의 취업전담 부서는 설치되어 있지만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무섭 외(2006)⁷⁾는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정부차원, 기업차원의 대책에 대해 기업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으로의 개편과 인턴사원의 악용을 막기 위해 기업체 채용관용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인턴

3) 안관수, "대학 취업경쟁력 강화와 직업진로지도 방안,"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4) 교육인적자원부, 종합인력개발센터 설치·운영, 2004
5)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진로지도와 노동시장 이행, 2002
6) 김학섭, "대학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 진로개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7) 강무섭, 전도근, "청년실업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생 직업능력개발 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6

사원제도의 올바른 운용을 위한 직업교육에 대해 과감한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2.2 대학생의 취업 행동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은 크게 심리적 특성과 개인적인 환경 특성 중심으로 연구될 수 있다.⁸⁾ 취업준비행동은 '직업탐색행동(job search behavior)', '구직행동(job hunting, job seeking)', '진로준비행동(career preparation behavior)'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지만 취업을 위한 학생이나 구인 기업에게 도 모두 중요한 과정이다.[Smith et al.].⁹⁾ 또한 직업탐색(job search)은 잠재적으로 취업가능성이 있는 직업들에 대한 정보를 모으는 과정[Steffy et al.].¹⁰⁾으로서 이는 포괄적 탐색과 집중적 탐색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은 '취업정보시장(job information market)'에 정보를 등록해 두는 것이며 또 한 방법은 '직업정보시장(hidden information market)'으로부터 정보를 찾아내는 것 또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되는 비공식 정보이다.(Allen et al.)¹¹⁾

2.3 대학의 취업정책 연구

학생이 선호하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특강 개설, 취업 준비 교과목 개설, 기업 취업 캠프, 임용 취업 지원 시스템에서 정보 제공, 졸업생 간담회 개최, 취업 상담 활성화 등과 같이 다양하다. 대학이 학생에게 지원한 취업 프로그램 중 가장 효과적인 것은 취업 실습경험 프로그램 다양화, 임용시험 관련 지원 프로그램, 기업 취업 캠프, 취업 준비 교과목 개설, 취업 상담 활성화, 토익 스파르타 교육, 취업센터 활성화, 학부, 과별 순회 특강 및 상담 등으로 나타났다.

김주엽(2003)¹²⁾¹³⁾은 대학 재학 중 일자리 체험이 취업 후의 직장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동기가 되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재학 중 일자리 체험이 장기적으로 임금

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대학은 학생의 장기적 발전까지 고려하는 정책 개발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병희(2002)¹⁴⁾, 황여정·백병부(2008)¹⁵⁾의 연구에서는 재학 중의 일자리 체험이 첫 일자리의 임금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연구의 설계

3.1 조사의 설계

본 연구를 위해 선행 연구에서 활용되었던 측정 변수와 연구자 유관 기관의 관계자의 인터뷰를 통해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측정 변수를 첨가하여 측정 변수를 구성하였다. 측정 변수는 대학의 일반 현황, 취업프로그램 운영현황(취업 가이드북 제작 지원 여부, 취업준비 특강, 취업박람회 실시, 잡 카페 운영, 취업을 위한 기업인 초청 강연, 인턴십, 현장체험 프로그램 지원, 해외 취업정보 제공 등), 취업 프로그램의 학생 및 기업의 선호도, 예산 규모, 취업 프로그램 노력도, 정부 지원 요구 사항 등등으로 구성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설문 문항은 대학생의 일반 현황, 취업 준비 사항, 취업 시 중요도 예상, 대학의 취업프로그램 필요성 및 만족도 등으로 구성하였다.

표본 총복의 15개 대학으로 취업담당자가 응답하였다. 대학생 표본은 충북 지역의 15개 대학에 각 100명씩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3.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자료의 수집은 우편, 팩스, 그리고 e-mail을 통하여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설문은 대학 기관의 협조로 모두 유효하여 분석에 모두 활용하였다. 대학 기관은 14개 기관, 대학생 유효 설문 1,600부를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조사는 2011년 3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기술통계량(도수, 기초통계량, 교차분석 등), 집단 간 평균분석(t-test),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4. 연구의 결과

4.1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

대학이 대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설문 구성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Cronbach α 계수 값을 분석한 결과 0.881로 나타났으며, 대학이 인력 양성을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항목에 대한 필요성을 설문 구성의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0.775로 나타나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연구 분야에서 설문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기준의 이상으로 설문의 신뢰성이 수용 가

8) 이재경, "한국대학생의 취업준비행동 : 심리적 특성 및 개인 배경변인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9) Smith C. L., & Gerhar B. "The impact of job search strategy and interviewer assessments of employ ability on multiple measures of labor marker success," Paper presented at the 1991 Academy of Management Meetings, Miami, FL., 1991

10) Steffy B. D., Shaw K. L., & Noe A. W., "Antecedents and consequences of job search behavior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s, 35, pp.254-269., 1989

11) Allen, R. E., & Keaveny T. J., "The realitive effectiveness of alternatives job sourc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16, pp.18-32, 1980

12) 김주엽, "재학 중 일 경험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제4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I, 한국노동연구원, 2003

13) 채창균, "대학생의 재학 중 일자리 체험과 취업준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 직업교육연구, Vol.22, pp.169-184, 2003

14) 이병희, "재학중 근로경험의 실태와 노동시장 성과," 중앙고용정보원 청년패널 심포지움 자료, 중앙고용정보원, 2002

15) 황여정·백병부, "대졸 청년층의 노동시장 성과 결정요인," 직업능력개발연구, 1(2), pp.1-23, 2008

능한 수준으로 판단하였다.

4.2 기초 통계량 분석

4.2.1 대학의 취업프로그램 운용 현황 분석

표본 대학은 4년제 66.7%, 2년제 33.3% 비율로 나타났으며 취업 정보를 제공하거나 취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지참할 수 있는 취업가이드북 제작 지원은 응답 대학의 46.7%가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대학은 대학생들의 취업준비를 위한 취업 특강을 86.7%가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박람회를 실시하는 대학은 26.7%이며, 그렇지 않은 대학은 73.3%로 나타나 대부분의 대학이 취업박람회를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학과/지도교수의 취업지원 활동으로 상담 71.4%, 인턴십, 현장 체험 기회 소개 21.4% 비율로 분석되었으며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3억원 미만(15.4%), 4억원 미만(23.1%), 5억원 미만(15.4%), 5억원 이상(46.1%) 등의 비율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취업 희망 기업규모는 대기업이 30.9%, 중소기업 35.4%, 공공기관/공기업 31.0%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희망연봉은 약 3,000만원 이상이 60.9%로 나타나 희망 연봉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 취업정보 수집시 가장 도움이 되는 곳으로 해당 기업 홈페이지 43.6%, 민간전문취업기관 24.9%, 학교취업기관 홈페이지 10.9%로 나타났다. 대학에 취업지원 담당부서 필요성에 대하여 85.1%의 학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응답자의 77.1%가 대학의 취업지원부서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2.2 대학의 취업프로그램 분석

취업 프로그램에 대해 응답 대학의 78.5%가 현실적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충청북도 주관 취업박람회 효용성에 대해서는 66.6%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학과(교수)의 취업지원정책 참여도는 보통 수준이 57.1%로 적극적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취업지원프로그램 적용 시기는 2년제 대학은 2학년 1학기, 4년제 대학은 3학년 1학기부터 본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3 대학의 취업정책의 노력 수준 분석

취업지원 프로그램 관련 항목별 노력정도 평가에 대한 14가지 항목에 대해 다음 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취업준비 지원, 취업상담 확대가 높았으며, 기업체 인턴십 확대, 기업체 취업 설명회 실시가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1] 취업지원프로그램 관련 항목별 노력 정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교과과정 취업준비 교과목 설치	4.07	1.207	3
2)기업체 취업 설명회 실시	3.29	1.267	13
3)취업상담 확대	4.29	0.914	2
4)취업정보 제공 강화	3.86	0.770	7
5)기업체 인턴십 확대	3.21	1.188	14
6)(학과)교수의 취업지도 강화	4.07	0.829	3
7)취업준비 동아리활동 지원	3.57	1.016	11
8)학생 요구 반영된 프로그램	3.79	0.893	9
9)취업준비지원	4.64	0.633	1
10)취업정보지원	3.93	0.917	5
11)기업정보지원	3.43	1.284	12
12)프로그램 체계성	3.93	1.072	5
13)프로그램 통합성	3.86	0.864	7
14)프로그램 다양성	3.64	1.216	10

*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의 노력 상위 3위 항목의 음영 처리

4.4 인력양성을 위한 필요성 분석

인력양성을 위한 항목별 필요도 평가에 대해 아래 표의 분석 결과를 보면 전체 항목의 평균값이 비슷하지만 진로지도 체계화, 재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산업체 요구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운영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리콜제도, 교과목 개설시 산업체 인사 참여 필수화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표 2] 인력양성을 위한 항목별 필요도

구분	평균	표준편차	순위
1)산업체 요구 반영 교육 개발/운영	4.33	0.900	3
2)실무능력 자격/능력인증제 도입	4.07	0.799	7
3)리콜제도	3.93	0.704	10
4)학습방법개선	4.20	0.676	4
5)진로지도 체계화	4.67	0.488	1
6)산학협력 내실화	4.20	0.775	4
7)직업교육 정보네트워크 구축	4.13	0.834	6
8)교수/강사와 현장인력 간 상호교류	4.07	0.704	7
9)교과목 개설시 산업체 참여 필수화	4.00	0.845	9
10)재학생 현장실습 활성화	4.40	0.507	2

* 대학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 상위 3개 항목 음영처리

4.5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필요성)과 대학정책(준비성)의 비교 분석

취업지원프로그램에 대해 아래 표와 같이 1)교과과정에 취업준비 교과목 설치, 3)취업상담 확대(학과, 학교 취업지원센터), 6)(학과)교수에 의한 취업지도 강화, 7)취업준비 동아리활동 지원, 8)학생의 요구가 반영된 취업지원 프로그램 항목은 학생의 필요성에 비해 대학의 준비성이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2)기업체 취업 설명회 실시, 4)취업정보 제공 강화(학교), 5)기업체 인턴십 확대는 학생이 필요로 하는 것보다 대학의 준비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취업프로그램의 대학생(필요성)과 대학정책(준비성) 비교

항목	대학생		대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교과과정에 취업준비 교과목 설치	3.81	0.821	4.07	1.207
2)기업체 취업 설명회 실시	3.94	0.816	3.29	1.267
3)취업상담 확대(학교취업지원센터)	4.06	0.790	4.29	0.914
4)취업정보 제공 강화(학교)	4.12	0.770	3.86	0.770
5)기업체 인턴십 확대	4.15	0.822	3.21	1.188
6)(학과)교수의 취업지도 강화	3.89	0.820	4.07	0.829
7)취업준비 동아리활동 지원	3.57	0.953	3.57	1.016
8)학생 요구 반영 프로그램	3.97	0.845	3.79	0.893

* 대학생 도수 1,162명, 대학 도수 14개

4.6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대학생(만족도)과 대학 정책(준비성)의 비교 분석

취업 프로그램의 모든 항목에서 대학의 준비성에 비해 대학생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만족도를 고려한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특히 1)취업준비 지원(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항목이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취업프로그램의 대학생(만족도)과 대학정책(준비성) 비교

항목	대학생		대학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취업준비 지원(이력서, 자기소개서 작성 등)	3.47	0.881	4.64	0.633
2)취업정보 지원(채용시기, 시험응시정보 등)	3.34	0.840	3.93	0.917
3)기업정보 지원(보수, 근무부서, 발전성 등)	3.26	0.886	3.43	1.284
4)체계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학년/업종에 따라 맞춤형 지원)	3.32	0.945	3.93	1.072
5)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교수, 학과, 학교의 연계성)	3.39	0.954	3.86	0.864
6)다양한 방식의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박람회, 참가패 운영 등)	3.44	0.943	3.64	1.216

* 대학생 도수 1,162명, 대학 도수 14개

4.7 대학과 대학생의 인식차이 분석

대학생이 대학의 취업 프로그램에 대한 현실성 분석에서 대학생은 평균 3.33(sd=0.892)으로 분석되었고 대학 스스로 평가에서는 3.79(sd=0.699)로 나타나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와 같은 평균 차이가 유의성을 내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생이 느끼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표 5] 대학 취업 프로그램 현실성 수준 T-test 분석

항목	t-값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 차이	신뢰구간(95%)	
					하한	상한
대학	20.255	13	0.000	3.79	3.38	4.19
대학생	65.828	310	0.000	3.33	3.23	3.43

4.8 대학 취업 프로그램의 만족도 분석

대학은 대학의 취업 프로그램의 학생 만족도가 평균

4.0(sd=1.617)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하지만 대학생의 만족도는 평균 3.46(sd=0.880)으로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위와 같은 평균 차이가 유의성을 내포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위해 아래 표와 같이 t-test 분석을 실시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학과 대학생이 느끼는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

[표 6] 대학 취업 프로그램 만족도 T-test 분석

항목	t-값	자유도	유의확률	평균 차이	신뢰구간(95%)	
					하한	상한
대학	9.25	13	0.000	4.00	3.07	4.93
대학생	69.70	312	0.000	3.47	3.37	3.57

5. 결론

대학 정책 분석결과 특징은 응답 대학은 취업박람회를 대체적으로 실시하지 않는 것(73.3%)으로 나타났으며 취업박람회의 필요성을 그다지 느끼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취업연계 교과목 편성방식으로 대학통합 편성 53.3%로 나타났으며 학과별로 편성은 40.0%, 시행하지 않는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취업정보 지원방식은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활용이 86.6% 비율로 나타났지만 대학생들이 학교 취업 게시판에 관심이 그다지 크지 않은 점을 취업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학과/지도교수의 취업지원 활동으로 상담이 71.4%로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인턴십, 현장체험 기회 소개 등이 21.4% 비율로 나타나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 중심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한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취업지원 프로그램 예산으로는 5억원 이상이 46.1%, 4억원 미만이 38.5% 비율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적지 않은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학생의 만족도는 비교적 낮게 나타나 효율적 예산 활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취업 프로그램 현실성은 응답 대학의 78.5%가 현실적이라고 응답 하였지만 대학생 응답 분석 결과를 보면 대학 취업 정책을 대체적으로 신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쌍방의 인식 차이가 다소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학의 취업 부서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는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응답은 다보 불만족하고 대학의 취업 정책을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현실적인 정책 방향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대학의 정책에 대한 학생의 인식 수준과 대학 정책 집행의 인식의 차이는 정책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대학생의 인식에 맞는 정책의 개발과 추진이 필요하다.